

국내 관광지 '톱100'에 광주 한 곳도 없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입장객 통계
광주과학관 66만명 광주 1위
무등산 관광 26곳으로 분산
관광정책 획기적 전환 필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우리나라 관광지 '톱 100'에 광주지역 관광지는 단 1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과 대전 등 국내 다른 광역시에 비해 유명 관광지도 드물고, 별다른 쇼핑 시설 등도 없어 관광객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광주비엔날레와 같은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치르는데 정부의 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외국인 관광객 수'의 경우 집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16 주요 관광지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광주에 있는 44곳의 관광지 중 '전국 100대 유명 관광지'에 포함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지'는 입장권을 받거나 관광객 수를 집계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곳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관광객 수를 파악할 수 있어 관광 정책 등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광주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국립광주과학관(66만6502명)이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뜨고 있는 광주지역 관광명소 중 하나인 양림동 '이장우가옥'의 경우 2016



5·18민주광장 조롱박터널 이색피서 광주·전남지역에 폭염이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조롱박터널을 행인들이 거닐며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년 한 해 동안 관광객은 7만1021명이었다. 또 광주시립미술관(4만5977명), 상록전시관(3만457명), 광주시립민속박물관(12만5333명), 국립광주박물관(54만2182명) 등의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수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광주 대표 관광명소인 무등산국립공원의 경우 전체 관광객은 307만3342명에 달했지만 관광지점이 동적골, 장원봉, 중심사, 원효사 등 26곳으로 나눠지

보니 관광객 수가 분산되면서 결과적으로 '톱100'에 들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

외국인 관광객 집계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광주지역 관광지점 44곳 중 외국인이 찾은 것으로 집계된 곳은 국립광주박물관(외국인 5556명)과 광주시립민속박물관(2348명) 등 2곳뿐이었다. 이는 나머지 광주지역 관광지점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거나 찾아온 사람의 수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에서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방문객이 543만2081명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찾는 사람이 많았다. 여수 엑스포해양공원(307만4070명·11위)과 오동도(280만506명·15위), 돌산공원(247만2980명·17위), 순천 낙안읍성민속마을(86만6055명·99위) 등도 빠르게 국내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관광을 활성화

기 위해선 전남의 유명 관광지와 광주를 연결하는 관광상품이 개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광협회 한 관계자는 "대구와 부산 등지는 자체적으로 찾는 관광객도 많지만 인근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숙박 및 쇼핑을 활성화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며 "광주와 전남 간 '관광 연대'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당 광주·전남 의원들 최고위원제 폐지 찬반 팽팽 혁신위 제안 혁신안 6명 찬성 6명 반대

국민의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단일지도체제 도입과 최고위원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4면>

광주일보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광주·전남에 지역구를 둔 16명의 국민의당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답변을 한 12명 가운데 절반인 6명은

혁신안에 찬성했으며 6명은 반대했다. 답변을 하지 않은 4명 중 2명은 자신의 당내 입장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머지 2명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설문에 응한 의원 대부분은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혁신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정확히 절반은 '당 대표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이유를 들어 최고위원제 폐지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천정배·주승용·장병완·황주홍·김경진·윤영일 의원은 혁신안인 단일지도체제에 찬성했다. 주승용 의원은 "지금 우리당 입장에서 선택하려면 단일체제가 낫다", 장병완 의원은 "최고위원들이 자리만 차지하면서 지방선거공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십상인 집단지도체제는 현재의 국민의당 상황에 맞지 않다"며 단일지도체제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동철·박준영·최경환·손금주·

이용주·정인화 의원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해서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혁신안)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의사결정 전 견제장치가 필요하므로 선출된 약관명의 최고위원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경환 의원은 "대표에게 주도적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당내 계파와 부

분을 대표하는 최고위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혁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의 주재할 입장이라 코멘트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박지원 전 대표는 "직전 당 대표로서 대선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기 때문에 의견을 말하기 부적절하다"며 의사표시를 보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도시공원 지키기 시민 목소리 커진다

일곡공원 인근 주민 집담회
중앙공원 시민모임 결성식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공원을 보존하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광주시가 도시공원 일부를 고층아파트단지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보다 다양한 대안을 놓고 공원의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여지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25일 오전과 오후 광주일곡공원(한세봉)을 지키기 위한 집담회와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가칭) 결성식이 잇따라 개최된다. 일곡공원을 지키기 위한 집담회는 이날 오전 10시 일곡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인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원일몰제는 무엇이며, 민간공원개발은 왜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7시 서구문화센터 2층에서 열리는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결성식에는 서구 YMCA,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등의 단체와 주민들이 참석한다.

집담회와 시민모임 결성식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과 현재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개념 및 부작용에 대해 전문가 강연과 토론이 이어진다.

광주시는 시내 25개 도시공원 가운데 수량, 마르, 송암, 봉산, 중앙, 중외, 일곡, 영상강대상, 송정, 신용 등 10개 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으로 정해 이들 공원 면적의 30% 이내는 개발하고 나머지 70% 이상의 면적은 기부채납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수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광주시가 공원 보존 및 적절한 개발을 위해 시민 기부, 입차제, 지방채 발행 등 좀 더 다양한 대안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도시공원 주변 주민들은 공원의 수혜자이자 개발의 피해자"라며 "주민들이 광주 시민과 함께 공원 보존의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The 21th Muan Lotus Festival

제리회 무안
여름꽃축제

2017. 8.12(토) ~ 8.15(화)
전남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

무안군

주요행사
• i-클존(얼음나라)
• 백련 가래떡 나눔 잔치
• 연지방 LED 소망등 달기
• 각설이 품바 공연
• 군민 합창 경연대회

사랑, 소망 그리고 인연